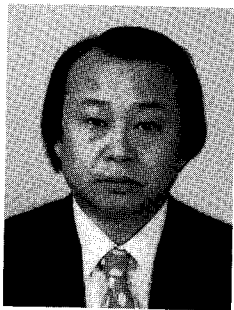


## 經濟發展 段階設의 理解

경제발전단계설(經濟發展段階說: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s)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학설을 말한다. 산업혁명 이래의 서구자본주의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발전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해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 우주진화론(宇宙進化論: cosmogony) 및 생물진화론(生物進化論: theory of biological evolution)등의 자연과학에 관한 이론적 발전에 자극되어 경제발전의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고찰해 보려는 데서 도출된 학설이다. 일찌기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며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1766)》으로, 유명한 아담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경제발전은 수렵·목축·농경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경제발전단계설적인 사상은 영국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존 밀(J. S. Mill: 1806~1873)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런 사상을 가장 진지하게 다룬 사람들은 독일의 역사학파로 구(舊)·신(新)의 두 학파로 분류할 수 있으나 두 학파 모두 경제발전은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독일 역사학파의 원조(元祖)로 볼 수 있는 프



설 용 석

대성전기산업사 대표

리드리히 리스트(F. List: 1789~1846)는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변을 중시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의 경제는 정상적으로 다음 5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역설하였다.

- 1) 수렵 및 어획시대
- 2) 목축시대
- 3) 농업시대
- 4) 농공시대
- 5) 농공상시대

리스트는 이와같은 5개의 발전 단계를 달리하여 한 나라의 경제정책도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舊)역사 학파의 로셔(W. G. F. Roscher)는 자연자원·노동·자본의 생산요소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다음의 3단계설을 제창하였다.

- 1) 자연지배적 단계
- 2) 노동지배적 단계
- 3) 자본지배적 단계

또한 힐데브란트(B. Hildebrand)는 경제의 교환 형태를 중심으로 다음의 3단계로 나누었다.

- 1) 자연경제
- 2) 화폐경제
- 3) 신용경제

또한 신(新)역사학파로서 슈몰러(G. Schmoller)는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조직을 기준으로하여 경제발전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었다.

- 1) 촌락경제
- 2) 도시경제
- 3) 영방(領邦)경제
- 4) 국민경제
- 5) 세계경제

뷔허(K. Buecher)는 재화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과정의 장단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 1) 봉쇄적 가내경제
- 2) 도시경제
- 3) 국민경제

이와같이 역사학파는 귀납법적(歸納法的: inductive)인 발전단계설을 기초로 해서 경제사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각기 다른 발전단계설을 도출하고 장기간에 걸친 경제발전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근세사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인 경제성장 단계설과는 약간 상이하다. 역사학파의 이러한 발전단계설은 부분적으로 오늘날에도 수긍이 가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 방법론이 깊이와 분석력이 없는 너무 피상적인 점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회주의자로 《자본론(資本論: Das Kapital·1876)》으로 유명한 마르크스(K. Marx: 1818~1883)도 역사학파에 준해 인류의 전 역사에 걸친 장기적인 발전단계를 그의 공산주의사상과 이에서 연유된 정치적 의도를 포함시켜 생산방식과 계급관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학설을 제기하고 있다. 즉 그는 크게 보아 경제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별로 일치된다고 보며 또한 무계급사회(無階級社會: a classless society)에서 계급사회로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1) 아시아적 단계
- 2) 고대적 단계
- 3) 봉건적 단계
- 4) 근대 부르즈아(bourgeois)적 단계

근대에 이르러 경제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성장 이론의 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근대 경제사의 통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주로 그 연구대상 시기를 봉건제도의 말엽부터 현대에 이르는 근대자본주의 시기

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역사학이나 마르크스등이 주(主)가 되는 재래의 경제발전 단계설과 구별하여 경제성장 단계설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장단계설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로스토(Walt Whitman Rostow(1916~))는 인간의 행위를 경제요인과 사회·경제·문화 등의 비경제 요인사이의 비교교량(較量)과 택일적인 균형의 산물(產物)이라는 전제아래 새로운 경제학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의 경제발전 5단계설은 유명하며, 저서에 "경제성장 체단계"가 있다.

로스토는 또한 근대 경제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마르크스와 같이 정치적 사상의 개입없이 또한 역사학과와 같은 일원론적(一元論的: monistic)인 방법론을 피하고 근대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에 역할이 컸었던 근대과학에 기초를 둔 생산기술, 투자율, 1인당 국민소득, 국가주의 사상의 대두, 기업가 정신의 보급 등 제요인(諸要因)을 중심으로 경험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로 1700년 이후의 경제사회의 역사를 분석한 다음과 같은 경제성장 단계를 밝히고 있다.

- 1) 전통적 사회(傳統的 社會: traditional society) - 농업중심의 전통적 단계
  - 2) 과도기(過渡期: transitional period) -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기는 과도(過渡)단계
  - 3) 이륙기(離陸期: take-off) - 생산비약 신장의 도약(跳躍)단계
  - 4) 성숙기(成熟期: maturity) - 공업화 정착의 성숙으로 인한 만기(滿期)단계
  - 5) 고도대중소비(高度大衆消費: high mass consumption)시대 - 내구(耐久)소비재보급화의 고도대중소비 단계
-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로스토의 성장단계

설중 세번째인 도약하는 이륙단계를 걸쳐 성숙기를 거쳐 오늘날 마지막 단계에 진입중으로 보여 지는데, 세번째의 도약단계와 관련하여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기술의 발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주요제조공업의 건설등이 이루어지며 기업가계층이란 새로운 계급이 탄생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력의 대두와 더불어 전통사회에서 물려받은 사회적·제도적인 근대화(近代化: modernization)의 저해요인 등은 제거되고 극복되며, 성장이 그 사회의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는 사회이며, 새로운 공업에서 얻게되는 이윤의 대부분은 토지투기등의 비생산적인 면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업부문의 생산설비의 확충에 재투자(再投資: reinvestent)되어 투자율은 보통국민소득의 5~10%, 그 이상에 이르면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성장현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였다. **전안**

[註] 1. 리스트(Georg Friedrich List: 1789~1846)

독일이 경제학자. 역사학파의 선구자이자 국민경제학의 시조이다. 박해하에서 관세(關稅)동맹의 결성과 독일통일에 진력하였다. 발전단계설적인 역사관에 의거하여 생산력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경제학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였다. 저서로 《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국가운송제도》등이 있다.

2. 존밀(John Stuart Mill)

영국의 경제학자·철학자·사회사상가 밀(James Mill: 1773~1836)의 아들. 철학·경제·정치·여성문제·종교·사회주의등에 폭넓은 저작활동을 전개했다. 영국 경험주의를 토대로 하여 귀납법을 체계화했고, 실증적(實證的)인 사회과학 이론의 확립에 노력했다. 자연주의 경제학 최후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주요저서에 《경제학 원리》, 《자유론》, 《공리론(功利論)》, 《자서전》등이 있다.

3. 슈몰러(Gustav von Schmoller)

독일의 경제학자·신역사학과(新歷史學派)를 일으켜, 프로이센의 사회정책을 이론적으로 지도했다. 멩거(K. Menger)와의 방법논쟁이나 베버와의 가치판단 논쟁으로도 유명하다. 저서에 《국민경제학 개론》 등이 있다.